금주의 법구-〈법구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 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5월 1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50호 2017년 6월 7일 수요일

종교인 과세 재유예 시민사회 비판 확산

김진표 의원, 2년 재유예 추진
시민사회 "더 이상 유예 안돼"
불교 · 천주교 '과세 찬성' 견지
정부 "내년 시행 문제 없다"
종교단체 대상 설명회 7월 예정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사회계는 시행을 코앞에 두고 종교인 과세를 재유예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논란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재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부터 불거졌다. 5월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추진 중이다. 법안에는 과세 2년 유예를 포함, 교회나 종교단체에 대한 탈세 제보 시 국세청 대신 소속 종단 · 종파에 세무조사를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 한국납세자연맹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5월 31일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시행키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종교인 관련조항)은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김진표 위원장이 이마저도 2년 더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8년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 징수 △원천징수 △세금탈루 의혹에 가산세 납부 등을 촉구했다. 보수 개신교를 제외한 불교 · 천주교 등 종교계에서도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계종은 종단 산하 복지 · 교육기관에서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현재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천주교는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다만 각 종교마다 특수성 및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뜻을 이미 정부에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 정부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수성향의 개신교 단체들은 김진표 위원장을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연합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시의적절하다'는 논평문을 내고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그 혼란과 마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부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기 전에 각 종단마다 가진 고유한 영역과 환경을 제대로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만한 과세 기준을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기획재정부는 5월 31일 예정대로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발표, 오는 7월 종교인 및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소득세법 개정에 의거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이를 안내하고 종교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또 국세청은 9~10월 중 종교인 과세에 대한 안내책자도 발행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처음 추진됐지만 종교계 반발, 준비 부족 등 이유로 50여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다 201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재석 의원 267명 중 195표의 찬성으로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종교인 과세 논란 일지

1968.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 표명
2012. 3.	박재완 당시 기재부 장관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 국민개세주의 관점서 특별한 예외 인정하기 어려워"
2013. 8.	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 포함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및 국회 제출
2014. 2.	임시국회, 종교인 과세 법안 처리 무산
2015. 8.	정부, 종교인 과세 포함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2015. 11. 30.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의결
2015. 12. 2.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 1.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어르신, 창포물에 발씻고 건강하세요"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5월 30일 경내에서 '단오재 화기애애(和氣愛愛)'를 개최했다. 연중 양기가 강한 날인 단오를 맞아 스님들은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세족식'을 진행했다. 시원한 청포물에 발을 담그고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바라보는 어르신의 표정이 마치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과 닮아 보여 훈훈하다.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남북 종교인 "6월 평양서 만남" 합의

5월 18~22일 ACRP서 남북 종교인 만남 성사

5월 18~22일 북경 베이징에서 열린 ACRP(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집행위원회의서 남북종교인들이 6월 평양에서 만나기로 뜻을 모았다.

남북종교인 모임을 시작으로 민간교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따르면 남북 종교인들은 회의 기간 중 이뤄진 몇 차례 만남을 통해 남북 화해와 평화,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종교인들의 역할이 중차대함을 확인했다. 이에 남북 종교인들이 나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교류를 재개해 갈등지수를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월 17~20일 평양에서 남북종교인 교류를 갖기로 합의했다. 남북 종교인들의 만남은 지난 2015년 11월 금강산 종교인 대회 후 처음이다. ACRP도 남북 종교인의 합의에 환영을 표하며 "오랜 세월 분단된 남과 북의 화해를 위해 종교인들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깊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헌신에 격려를 보낸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남북 종교인들이 속히 만남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KCRP는 회원 종단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 종교인의 만남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북한 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및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의 대북접촉을 잇달아 승인하며 민간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 내 대북교류 및 인도지원단체인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사)나누며하나되기 등도 정부의 남북 민간교류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추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민간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이 정해진 건 분명하다. 다만 대북접촉 승인은 그야말로 팩스 ·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허용하는 정도"라면서 "현재 민추본도 대북접촉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승인 후 북측과 협의를 거쳐 교류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총지종 · 대각종 종단협 부회장 종단 격상

5월 31일 이사회서 만장일치 결의

총지종과 대각종이 종단협 부회장 종단으로 격상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5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총지종과 대각종을 부회장 종단으로 격상시키기로 결의했다. 이에 종단협은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태고종 등과 함께 6개 부회장 종단으로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위 설치를 통한 후보 추천 심사와 표결 처리 등 의견이 엇갈렸으나, 중재 끝에 만장일치로 두 종단 모두 승격 처리하기로 결정됐다.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총지종은 종립학교를 비롯해 사회복지재단 등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인선 정사



만청 스님

부회장 종단 승격을 계기로 회원 종단간의 소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도 "대각종은 적극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종단협 대소사에 협조,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승 스님은 "각 종단과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각 종단이 함께 힘을 모아 잘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종단협은 9월 6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리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국민화합대회'를 함께 여는 등 올림픽 분위기 조성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의에 앞서 김학철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동계올림픽 현황을 브리핑하고, 불교계 동참이 절실하다고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노덕현 기자

한반도평화기원 금산사 5층석탑 (보물제25호) 사리친견 안내

유가종찰 · 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사리는 계 · 정 · 혜를 훈수한 결정체로서 매우 얻기 어려우며, 최상의 복전 (福田)이므로 일체 중생들은 마땅히 이 사리에 예배하고 공양하라"
〈금광명경金光明經〉권 4 사신품捨身品

사리는 한량없는 육바라밀(六波羅蜜)의 공덕으로 생기며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을 닦아 생김으로 매우 얻기 어렵습니다.
미륵성지 모악산 금산사 오층석탑 사리는 보물 제 25호 금산사 5층석탑의 해체 보수 과정에서 수습 된 석가여래 사리 5과와 정광여래 사리 2과, 정광여래 분신사리 1과입니다. 윤5월 삼사순례시 모악산 금산사 사리친견을 통해 부처님과의 무량한 인연공덕 맺으시기 기원합니다.



- 사 리 : 석가여래 사리 5과, 정광여래 사리 2과, 정광여래 분신사리 1과
- 사리친견기간 : 불기 2561(2017)년 9월 5일까지
- 장 소 : 금산사 대적광전



석가여래 사리 5과



정광여래 사리 2과, 정광여래 분신사리1과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전화 063)548-4441~2 | 팩스 063)548-1390
홈페이지 : www.geumsansa.org
이 메 일 : geumsansa@hanmail.net